

OPINION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문화산책

민생지원금으로 시(詩)를 살 수 있다면

백승현

대동문화 전문위원



벌써부터 민생회복 지원금을 우리 가게에서 쓸 수 있다면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 옷, 이불 가게, 편의점, 커피숍, 식당, 미용실, 치킨집, 빵집... 그보다 더 많은 가게들엔 '입대 문의'라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민생지원금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 많은 가게와 주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민생'이란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이고 '생계'란 '살아갈 방도나 형편'을 말한다. '생계'라는 말에서 탐내와 열기가 느껴지고, 먼 곳을 응시하는 시선과 아귀고 주름진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

민생회복 지원금을 예술인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면 어떨까? 쌀을 사듯이 시인에게 시를 사고, 화가에게 그림을 사고 민생지원금을 결제한다. 그러면 예술가들의 생계가 조금 나아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새로운 정부는 예술활동 증명서를 완료한 모든 예술인에게 '기본소득' 개념의 연 1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예술과 생계를 생각할 때 고등학생 시절 단제로 봤던 영화 '서편제'의 대사가 떠오른다. 영화 속 유봉 일가는 정처 없이 떠돌며 소리를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소리로 먹고살기 힘든 시절이 되어 버렸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날들이 많아진다. 아들 동호는 이러한 현실을 적시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만 고집하는 아버지의 삶에 깊은 회의감을 느낀다. 아버지 유봉은 판 소리의 '듬'이라는 예술적 경지에 대해 광적으로 집착하는 예술지상주의자다.

어머니가 죽어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동호와 송화 앞에서, 아버지 유봉은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북을 치며 송화에게 소리를 하라고 다그친다. 아버지의 비정한 모습에 동호는 경악하고 분노한다.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이젠 더는 못 참겠소!"라고 말하고 "우리 이제 뭘 먹고 살아요!"라고 절규한다.

"우리 이제 뭘 먹고 살아요!"라는 대사는 예술과 현실이 부딪혔을 때의 예술관의 충돌에 다름 아니다. 예술이냐 생계가냐? 알랭 드 보통은 '영혼의 미술관'이라는 책에서 '예술은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나서 대답하기를 예술은 가치의 기억, 희망, 슬픔의 승화, 일상의 균형 회복, 자기 이해, 자기 성장의 동력, 감상을 통한 동화라는 기능 때문에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예술 작품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정서적 감정적 균형을 회복해 가고 우리의 불안정성을 깨닫고 용기를 얻게 된다. 예술은 균형과 선함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해줌으로써 우리의 시간을, 삶을 구원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창작자들은 어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가는 진리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고귀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또 자본주의라는 세계 위에 발을 딛고 사는 한 명의 생활인이다. 예술가들은 정신주의와 물질주의라는 프레스에 갇힌 노동자와 같다. 생계라는 물질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예술가의 생애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예술가'라는 낭만주의 신화가 우리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다. 낭만주의 신화에서 예술은 돈을 죄악시하거나 비도덕적으로 여긴다. 예술가가 돈을 이야기하면 속물론, 상업적 성공을 거두면 예술혼을 팔았다고 수군댄다.

자본주의에서는 세상 모든 것이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예술 작품의 가치는 공산품처럼 제작비와 마진이 매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불명확하다. 예술가는 자신의 노력과 작품의 예술적

성취가 시장 가격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이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분열하게 된다.

예술을 하면서 '돈을 생각하는 나는 순수하지 못하다'는 내면의 도덕적 갈등과 '예술을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라는 현실적 고통은 창작자의 삶을 갇아먹고 영혼까지도 탈진시킨다.

김수영 시인은 '돈'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한다. '돈의 힘은 나의 힘보다 세다/아아 나는 돈의 힘을 안다/돈의 더러운 힘을 안다/돈의 비린내 나는 활력을 안다' 시인은 돈이 명예나 사랑보다 강하다고 절규하면서도, 그것을 '더러운 힘'이자 동시에 '비린내 나는 활력'이라고 부른다.

돈은 우리를 타락시키고 속박하는 더러운 것이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움직이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초적인 에너지이기도 하다.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 밖에서 살 수 없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술을 감성함으로써 우리의 천성을 지킬 수 있다. 예술 감상이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한다.

예술 창작자들은 '돈은 예술의 적'이라는 낡은 신화를 폐기해야 한다. 돈은 예술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예술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도구'다. 생활의 안정이 창작의 자유를 보장한다. 자본주의를 활용해 내 예술 세계를 지키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적 사유'가 필요하다.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따뜻한 보살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돈이나 예술이나? 이 둘은 서로 더 좋고, 현명하고, 정확한 관계를 형성할 수는 없을까? 우리는 지금 그런 오래되고 해묵은 고뇌를 지금도 하고 있다. "우리 뭘 먹고 살아요?" 예술가들은 늘 이 고뇌에 찬 질문에 스스로 답변하고 예술가로서의 삶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더러운 힘이고 비린내 나는 활력이라도 순결한 영혼의 예술가들은 예술로 충분히 먹고사는 생계를 지금도 꿈꾼다. 시인과 화가들이 불행 때문에 폐업을 해서야 되겠는가?

기고

기후 위기 앞에서, 녹색산업은 생존전략이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



2024년은 한국 기상 관측 사상 유례없는 기후를 경험한 해였다.

여름철 지속된 극심한 더위와 끝없는 열대야로 시민들이 고통받았다. 장마철에는 폭풍탄 같은 집중호우가 쏟아져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가을에는 때 이른 폭설이 내리고 단풍도 늦어지는 등 사계절의 리듬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기후변화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삶 속 현실임을 생생하게 보여준 한 해였다.

올해도 만만치 않다. 이상 기온으로 인한 늦은 개화는 광양 매화축제에 큰 아쉬움을 남겼으며 우리나라 반대편 미국에서는 짧고 강한 폭우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여름은 특히 짧고 강한 비와 건조한 기간이 반복되는 '마른 장마'로 인해 예년보다 더운 여름이 예상된다.

위협은 기후 재난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도 중대한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철강과 석유화학 중심의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은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산업 구조로 인해,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무역 장벽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탄소 감축 기술과 녹색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후테크를 이용한 "녹색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녹색산업은 기존 화석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바꾸고 에너지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를 만드는 모든 분야를 말한다.

단순히 환경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감으로써 미래 일 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탄소중립도시·특구를 조성하고, 청년·녹색 분야 창업 프로그램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중에서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통해 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며, 특히 '녹색전환보증' 제도를 통해 탄소 저감 및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갖춘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제때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제도화돼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갖추게 된다. 그 효과도 분명하다. 녹색전환보증을 통해 58만 이상의 탄소 감축은 물론, 기업의 연평균 매출 14% 증가, 고용 8%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 CBI(국제기후채권기구)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녹색채권 발행 규모가 약 926조 원에 이르는 데 비해, 한국은 8조 2000억원 수준으로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IEA(국제에너지기구)는 OECD 평균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34.9%인 반면, 한국은 10%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2030년 목표치인 21.7%조차도 주요국의 현재 수준을 밑도는 현실이다.

지속 가능한 녹색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시민의 관심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난 5월 22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여수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산업계 녹색성장 순회지원단 설명회'에서는 다양한 정부 지원책이 안내됐다. 이어 오는 14일에는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전남중기청과 함께 업무협약 및 현장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또 지난 9일 열린 '2025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대전' 역시 지역 녹색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역 기업들이 신기술과 신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홍보 부스가 운영됐고 최신 정책 동향과 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결국 녹색산업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기업의 혁신, 그리고 시민의 실천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친환경 기술에 기반한 제품 소비는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변화다.

기후위기는 이제 구호가 아닌 현실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녹색산업은 단지 환경을 위한 산업이 아니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핵심 동력이다. 지금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후 특이점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길일 것이다.

취재수첩

'K 컬처 시대' 콘텐츠 발굴 지속해야

김다정

문화체육부 기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몇년 전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며 남긴 말이다. 봉준호 감독이 불러일으킨 'K컬처 신드롬'은 일회성에 그친 이슈가 아니었다. 영화, 드라마, 음악, 애니메이션까지. 하나의 트렌드가 된 K컬처는

이제 세계 곳곳으로 깊숙이 뻗어나가고 있다.

BTS의 빌보드 차트 석권,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에미상 수상,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이어 지난 6월에는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연극·뮤지컬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을 거머쥐면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최근에는 K팝 아이돌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애니메이션 '케이팝 마운틴스'가 국내외 높은 인기를 끌며 주목받고 있다. 이 작품은 K팝 걸그룹 헛트릭스가 화려한 무대 뒤 세상을 지키는 숨은 영웅으로 활약하는 이야기를 다뤘다.

눈에 띄는 점은 작품 곳곳에 담긴 한국적 요소다. K팝 아이돌이 주인공이라는 점부터 한의원, 목욕탕, 저승사자, 김밥, 순대, 지하철 등 친근한 배경과 소품이 가득하다.

악령, 귀마 등 한국 무속신앙 요소가 더해진 점도 흥미를 더한다. 특히 이 작품은 미국 소니픽처스 애니메이션에서 제작한 것으로, 해외 제작 애니메이션으로는 K팝을 전면에 내세운 첫 사례다. 봉준호 감독의 말처럼 가장 한국적인 것이 어떻게 세계적인 콘텐츠가 되는지를 제대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문화의 위상은 이제 더 이상 '국뽕'이 아니다. 우리 고유의 정체성과 역사, 문화를 살린 콘텐츠들이 가진 힘이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 나아가 이는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콘텐츠를 꾸준히 발굴하는 것이 K콘텐츠 시대에 주요한 자신이자 경쟁력이 될 것이다.

사설

광주 '시민불편 신속대응 도시철도 TF' 기대

광주시가 '시민불편 신속대응 도시철도 TF'팀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을 팀장으로 시민안전실·대변인실·도시철도건설본부·종합건설본부 등 4개 실·본부, 9개 부서가 참여한 팀을 구성. 첫 회의를 열고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의 도로 완전개방을 오는 12월 22일로 확정된 것이다.

이는 2019년 10월 착공에 들어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가 6년째 계속되면서 시민 불편 민원이 잇따르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6월 현재 1단계 공사는 토목 공사 공정을 92%, 공사구간 도로 개방률은 42% 수준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달까지 도로 개방이 완료돼야 하는데 도로 지하굴착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암반 물량이 나오는 등 장애 요인이 잇따라 발생해 12월까지 6개월 연기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이후 급조지구, 백운광장, 광주역 뒤편 등에서 15t 트럭 기준 약 3700대분의 강도가 단단한 '경암'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를 파쇄하기 위해 공기 단축이 가능한 발파공법을 채택하려 했지만 주변 주택·상가, 도시가스관에 대한 소음·진동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적용하지 못했다.

대신 작업시간이 많이 걸리는 암반의 틈을 굴착기로 쪼개는 쪼개기 방식을 채택해 공사를 진행해 공기에 차질을 빚은 것이다.

또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전력 통신선 등 지하 매설물이 당초 설계보다 더 많이 발견된 것도 여기에 한 몫했다.

도시철도 TF는 도로개방이 완료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사항을 3가지로 유형화하고 맞춤형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운전자의 주행불편을 야기하는 공사구간 복곡판과 울퉁불퉁한 포장도로는 차도 덧씌우기를, 잦은 차로 변경으로 혼선을 겪던 교차로 구간 차선, 유도선도 도색작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

또 매주 1회 시민불편 민원 현장을 방문, 신속대응 해결대책을 점검하고 공사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한다. 도시철도 TF가 제 역할을 해 시민불편 민원이 최소화되길 기대한다.

해남군 귀농·귀촌 정책 '눈에 띄네'

해남군이 도시민 '귀농·귀촌 1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귀농·귀촌 유치를 본격화 한 이래 지금까지 6년간 귀농인 8477구 1014명, 귀촌인 7446가구 8468명의 인원이 정착한 것이다.

즉, 도시민 8331가구 9444명이 노후의 안정적 생활과 농촌에서의 인생 2막을 꿈꾸며 해남으로 몰려들었다는 얘기다.

여기서 귀농인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고 귀촌인은 농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인구를 말한다.

지난해에는 123명의 귀농인이 유입돼 전년 1위, 전국 3위까지 차지했다고 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경지면적과 친환경인증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다양한 특화작목 등 농업기술도 잘 보급돼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엇보다 해남군의 체계적인 귀농 정착 지원 정책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먼저 눈에 띄는 귀농 정책으로 예비 귀농인이 실제 정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의 초기 상담, 그리고 농지 확보, 주택 수리·입대 지원, 귀농 창업자금 연계 등 귀농인이 되기까지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귀농인 정착률 제고에 효과가 크다고 한다.

또 이사회 지원, 영농 창업 상품권 등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은 물론 '영농정착 확대 지원사업'을 통해 초기 종자 구입비부터 단계별 포장박스 제작, 홈페이지 구축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선도농가 현장실습 등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농사 정보 제공과 실제 농촌 생활 체험,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까지 돕고 있다.

해남군은 앞으로 청년 귀농인 유입 확대와 창업 지원 강화,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정착형 프로그램 지속 운영과 함께 정주 여건 개선에도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한다.

해남군의 귀농·귀촌 정책이 저출산,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치부 370-7010 경제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집부 370-7082 사전부 370-7050	논설실 370-7060 뉴미디어부 370-7222 임원실 370-7000 총무국 370-7093 사업국 370-7090 광고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